

35년 된 버스터미널 '관광 완도' 이미지 훼손

완도 관문...비가림막·차광막도 없어 이용자 불편 호소
관광객들 인터넷·SNS 사진 유포 부정적 이미지 확산

35년 된 완도터미널의 노후화가 심각해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승객들이 수시로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버스도착 후에는 비가림·차광막 시설조차 없어 비와 눈을 맞거나 여름철 강한 햇빛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2017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대중교통으로 완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완도를 방문한 일부 관광객들이 노후한 완도터미널의 모습을 인터넷

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면서 완도의 전체적인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완도지역민들은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완도지역 관광산업 위축은 물론 전북 등 대표 농수산품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완도터미널은 1981년 이전한 건물로 35년째 완도를 대표하는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완도터미널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목포, 강진 등을 오가는 54대의 버스가 하루 76회, 완도교통과 신지교통, 소안교통 소

속 11대의 버스가 122회를 왕복 운행하는 등 총 65대 198회 운행중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만 14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해 주민불편은 물론 관광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도착 후에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비가림 시설마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완도지역은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서 완도~제주도 간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개인·단체 관광객까지 겹치면서 노후한 완도터미널에 대한 불만도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열린 완도의 대표 축제인 장보고 수산물 축제기간에도 버스편을 이용해 완도를 방문한 일부 관광객들이 버

스터미널에서 갑자기 내린 비에 흠뻑 젖기도 했다.

반면 인근 대부분의 타 시·군 터미널에서는 도착출차광막 시설은 물론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최소한의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등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완도버스터미널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완도주민은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크게 늘고 있는 데, 버스터미널 등 관광객을 맞이하는 시설은 낙후한 모습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젊은 관광객들이 옛 영화 속 터미널 같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때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쓸쓸한 기분이 든다.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기 전에 신속히 어렵다면 시설 개보수라도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지원

해남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최근 여름 시즌을 맞아 수용자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수 1만병을 해남교도소(소장 김춘오)에 전달했다. 19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이번엔 신조된 노화 카웨리3호는 498톤으로, 승객 하루 6차례 노화 산양항에서 해남 땅 끝을 왕복 운행한다.

김춘오 해남교도소장은 "수형자들을 위해 매년 생수를 지원해 준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수형자들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올바른 수형생활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형자와 수형자 자녀에게 매달 생활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형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라미봉사활동과 가족사랑 캠프, 교정 위원과의 만남 등 다양한 교화활동으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 노화~해남 땅끝 '카웨리 3호' 취항

새 여객선인 노화 카웨리3호가 최근 취항식을 갖고 노화 산양항~해남 땅끝 마을을 운행하고 있다.

19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이번엔 신조된 노화 카웨리3호는 498톤으로, 승객 283명과 승용차 42대를 실을 수 있다. 노화농협 여객선은 그동안 한정면허로 노후선박의 신조계획과 주민의 해상

교통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규제개혁에 따른 해운법 개정으로 한정면허제도가 폐지되고 일반면허로 전환되면서 선박 신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신 여객선 운항으로 도서주민은 물론 여름 휴가객과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해상교통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새얼굴 "최상의 해상 치안으로 지역민 생업 지원"

김상배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최상의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상배 제4대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은 19일 "열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해상을 안전하게 오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출신인 김 서장은 지난 1979년 순경 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했으며,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진도군 꼼꼼한 계약심사 상반기 예산 5억여원 절감

진도군은 "올해 상반기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설계원가 적정성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 예산 5억3000만원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도군은 사업예산 낭비 사전 차단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11년부터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진도군은 올해 상반기 군 본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심사 요청한 각종 공사와 용역 등 총 66건 132억원에 대한 자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사 39건 4억2000만원 ▲용역 27건 1억1000만원 등 총 5억3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계약심사 역할을 강화해 사업의 품질향상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열악한 군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읍 어르신들 학교 체험

진도읍 진도읍 한글학교 어르신 학생 45명이 최근 진도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찰흙으로 동물을 만드는 미술수업을 받는 등 1일 학교 체험을 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아리랑 농수특산물전' 1억 5000만원 매출

서울 김스클럽서 7일간 개최

진도군이 농수특산물전을 개최해 1억 5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정 진도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인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김스클럽에서 7일 동안 진도아리랑 농수특산물전을 개최했다.

군은 현장에서 4000여만원의 매출과 함

께 온라인 주문 등 총 1억 5000여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특산물전은 청정 무공해 지역 진도군에서 생산된 울금, 홍주, 멸치, 미역, 마른 생선 등 진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과 주요 관광지를 집중 홍보했다.

특히 진도아리랑 농수 특산물 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생산자들이 직접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청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산 농가와 대도시 소비자들간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인 뉴코아 김스클럽, GS리테일 등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서울 코엑스와 킨텍스, 직거래장터 등 박람회·전시회에서 현장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평 ★
LG 3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개발 부지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5분 (승복시장)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 개발 부지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2분
토지 359평
오피스텔 207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37억 발생

▶ 매가 30억

①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고덕 교차로 7분)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 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922평 (평당 30만)
▶ 매가 1억 4천 76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주)대신건설 시행개발 전문】 010-6670-9800 010-7384-7800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 6층 - 23평
▶ 투룸 형, 코너자리
▶ 리모원비, 풀옵션, 코너자리
보 500만 월 45만

★ 매가 - 8천500만

062-511-7800

010-6832-9700